

광주 산업전력 소비 넉달째 감소... 짊어지는 '불황'

지난해 산업용 전력사용량 315만1146MWh... 전년보다 0.9% 감소 광주·전남 전기료 체납 691곳... 체납 금액 1년 전보다 5.6배 늘어

경기 침체 징후를 가능케 하는 산업용 전력사용량과 산단 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광주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소비 위축이 심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불황이 짊어지는 모양새다. 14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315만1146MWh(메가와트시)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광주지역 연간 산업용 전력사용량 감소세는 하반기 사용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광주지역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광주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1년 전보다 2.6% 많았지만, 9월(-1.1%), 10월(-4.9%), 11월(-4.8%), 12월(-7.5%) 등 넉 달에 걸쳐 감소율이 확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산업용 전력 연간 사용량은 전년도

다 3.5% 증가했으나, 11월 들어 사용량이 21.8%나 감소하면서 성장세를 꺾었다. 지난해 12월 사용량은 전년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다른 경기 지표의 하나인 산업단지 가동률도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산업단지인 광주첨단산단과 여수산단은 지난해 11월 가동률(생산액/최대생산능력)이 1년 전보다 각각 0.2%, 3.9% 감소했다. 여수산단 가동률은 2021년 11월 91.9%에서 지난해 88.0%로 줄었다. 광주첨단산단은 제조업 가동업체 수가 1년 사이 25개 늘었음에도 가동률이 소폭 내렸다. 지역 산업계가 금리 인상과 수요 감소 등 악재를 견디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

면서 전기료마저 내지 못하는 공장이 늘고 있다. 지난해 2021년 1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32% 오른 상태다. 한국전력의 '지역본부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호수는 691호로, 전년 말(607호)보다 13.8%(84호) 증가했다. 이들이 내지 못한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29억 1900만원에서 162억4200만원으로, 5.6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1곳당 평균 체납액은 2021년 말 480만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2350만원으로 급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23.4% 늘었는데, 한전의 15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액을 비교

하면 광주·전남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1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9.8%로, 제조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09개 제조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조사' 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4.9%에 달했다. 50.2%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복수 응답)은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 요금 개선(82.5%)이 압도적이었다.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55.7%)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 이용하고 경품도 받아주세요”

추첨 통해 1등 캐스퍼 증정 신규 회원 1만원 할인쿠폰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떡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떡깨비 앱을 내려받아 경품이벤트 페이지 하단의 '이벤트 참여 정보 제공 동의'를 누른 후 2번 이상 주문하면 자동 응모된다. 경품 추첨은 이벤트 응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하며, 1등 당첨자 1명에게 현대자동차 캐스퍼, 2등 당첨자 2명에게 LG노트북, 3등 당첨자 2020명에게 떡깨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밖에 신규 가입 회원에게 1만원권, 기존 회원에게 3000원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매일 1만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저렴한 중개 수수료(1.5%)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시했다. 2022년 7월 출시해 8월 말까지 한 달 보름 여간 4억3000만원이었던 매출액이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까지 23억8000만원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해 450%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다. 회원 수도 지난해 8월 말 1만4614명에서 올 1월 말 4만866명으로, 가맹업체도 3423개소에서 5883개소로 늘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소비자의 떡깨비 이용률을 높이고 가맹점을 확대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배달앱이 되도록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하겠다”며 “또한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켄텍, 전남자치경찰과 캠퍼스 치안 강화 협약



윤의준(오른쪽 3번째) 총장과 조만형(오른쪽 4번째) 위원장이 지난 13일 켄텍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켄텍 제공>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지난 13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학 캠퍼스 치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윤의준 총장과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나주시 빛가람동 켄텍 1동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자치경찰제 발전과 대학 치안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백혜운 사무국장, 이정호 자치경찰정책과장, 기은택 치안협력팀장과 켄텍 한상철 기획처장, 윤용식 행정처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치안서비스 협업 ▲과학 치안 관련 연구·개발(R&D) 발굴 및 사업 추진 협력 ▲자치경찰제 발전 및 대학 캠퍼스 치안 강화를 위한 정례회 개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학 치안 기반의 범죄 예방 서비스와 범죄 피해자 맞춤형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축협 '마북동 종합타운' 기공식.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가운데)은 14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부지에서 '마북동 종합타운 기공식'을 열고 안전 시공을 기원했다. 내년 6월 3층 규모로 준공 예정인 이 건물에는 하나로마트와 축산물 직매장, <광주축협 제공>

사학연금, 19일까지 고객정책자문단 모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오는 19일까지 '6기 고객정책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고객정책자문단은 연금제도 운영과 정책 의사결정에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고객소통 창구 기능을 하며 고객 중심 연금업무와 신규 사업 발굴에 힘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활동을 마친 '5기 자문단'은 홈페이지 개선과 고객 생애주기별 맞춤형 우수 교육 콘텐츠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제안했다. 올해는 모두 100명을 모집한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활동한다.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주고, 우수 정책에 밝히면 포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t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